

“매우 곧 끝날것” 11일째 변곡점 맞나...이란 “우리가 결정”

유가급등 충격속 트럼프 주춤...‘모즈타바’ 중심 결집 이란, 결사 항전 미·이스라엘도 타격 지속...레바논 70만명 피란·걸프국 피해 속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전쟁이 11일째로 접어들며 중대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이 “매우 곧 끝날 것”이라며 조기 종전을 강하게 시사하면서다.

확전 공포로 장종 배럴당 120달러 선까지 폭등했던 국제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발언과 주요국의 개입 기대감에 80달러대로 단숨에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도달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매우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있다. 계획보다 훨씬 앞서 있으며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이란 군사작전 열흘 만에 이란 함정 5척을 격침하고 미사일 시설 등 5천개 이상의 표적을 타격했다”며 “이란의 미사일 능력이 10% 이하로 떨어졌다”고 군사적 성과를 과시했다.

이는 이란 새 지도부 출범에 따른 확전 우려로

요동치는 글로벌 경제 위기감을 진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전쟁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우리는 적이 완전히, 그리고 결정적으로 패배할 때까지 (공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이란 강경파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최고지도자 승계 소식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코의 유전 감산 소식이 겹치며 브렌트유는 장중 한때 배럴당 119.5달러까지 올랐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마저 이란에 의해 봉쇄될 위기에 처하자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선언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시간 동안 통화하며 종전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는 빠르게 진정됐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쥐고 흔들려는 이란의 시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그것(해협)을 장악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경고



9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서 열린 벤저민 프랭클린 육군 하사의 유해 이송식에서 JD 뱅스 미국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군인들이 운반하는 동안 경례하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하고,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전략 비축 유 방출 등 시장 개입을 예고하면서 이날 브렌트유는 배럴당 88.42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84.94달러로 떨어졌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건 (미국이 아닌) 우리”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혁명수비대는 이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이 지역에서 단 1%의 석유수

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부친 야아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가족을 한꺼번에 잃은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중심으로 거세게 결집하고 있다.

이란 군부와 핵심 기관들은 일제히 새 최고지도자를 향한 충성을 맹세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완전한 복종”을 선언한 직후, 새로운 군 총사령관 모즈타바에

게 바친다며 ‘라바이크 야 하메네이(하메네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작전명의로 초중량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했다.

모즈타바와 더불어 유력한 차기 지도자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역시 모즈타바를 신속히 지지하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즈타바의 선출을 두고 “무게감이 떨어지는 인물”이라며 큰 실수라고 평가절하하고 “그가 집권해 5년, 10년 뒤 똑같은 문제에 발목 잡히길 원치 않는다”며 이란 정권의 근본적 교체를 시사하는 등 경계심을 감추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란과 이스라엘 등 중동에서는 여전히 폭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전투기는 이란 전역의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고,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와 중동 내 미군 기지,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미사일·드론 보복 공격을 확대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세도 격화하고 있다.

친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 근거지인 베이루트 남부와 베카계곡 등에 대규모 폭격을 이어지면서 레바논에서만 어린이 20만 명이 포함해 약 7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베카시의 반타르계방 매립지에서 발생한 산사태 이후 구조대원들이 희생자를 구조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세계 최대 인니 매립지서 50m 높이 쓰레기 더미 붕괴

폭우 내린 뒤 사고...사망 5명·실종자 4명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인도네시아 폐기물 매립지에서 폭우로 쓰레기 더미가 무너져 5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10일(현지시간) AFP·A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외곽 도시 브카시에 있는 반타르계방 매립지 4구역에서 쓰레기 더미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매립지에서 작업하거나 쉬고 있던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기와 노점 상인 등 5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사고는 지난 주말 폭우가 계속 내린 뒤 50m 높이의 쓰레기 더미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매립지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개방형 폐기물 처리 시설로 자카르타에서 나오는 쓰레기 7천가량을 매일 받아 처리한다.

사고 당시에는 축구장 380여개 규모인 274만㎡ 부지에 쓰레기 5만5천t이 쌓여 있었는데도 전례였다. /연합뉴스

日학교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공립 초중고 72%가 팩스 사용

서류 도장 사용 비율 91%

학교 디지털화 목표 차질

일본 정부가 학교내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팩스와 도장을 널리 사용하는 등 아날로그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니혼게이자이·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이 공립 초·중·고등학교 2만8천49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학교 중 71.7%가 일상 업무에 팩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서류에 도장을 쓴다고 답한 비율은 91%에 달했다. 공립 학교의 팩스 사용 비율은 전년보다는 51

%포인트, 도장 사용 비율은 1.9%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학교 디지털화 목표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평가된다.

지난 2023년 일본 정부는 2025년에는 모든 학교가 팩스·도장 사용을 원칙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문부과학성은 학교들이 팩스를 지역 업체 등과의 거래에, 도장은 생활 통지표나 진로 희망 조사서 같은 학부모용 서류에 많이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대면과 온라인 방식으로 함께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회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89%에 달했고, 온라인 학교

설명회나 학부모 면담 역시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이 73%였다.

급식비나 학교 납입금을 현금으로만 받는 학교도 조사 대상 학교 중 12%였다.

학교내 디지털화가 다소 진전된 부분도 있었다. 학생들의 결석이나 조퇴를 클라우드로 집계한다는 비율은 84.2%였고, 학부모에게 안내문을 배포할 때 온라인을 이용한다는 비율은 62%였다.

디지털화가 진전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검토할 시간이 없다’(40%), ‘정보통신기술(ICT)에 불안감이 있다’(33%)가 가장 많았다.

이번에 발표된 조사는 지난해 9월 상황을 기준으로 같은 해 11-12월 시행했다. /연합뉴스

교도 “복중 여객열차 오는 12일 운행...6년만 재개”

“복중 관계 활발해질 전망”

중국 베이징과 북한 평양을 연결하는 여객열차 오는 12일 약 6년만에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 교도통신이 10일 중국측 관계자를 인용

해 보도했다.

평양과 베이징을 잇는 여객열차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2020년 1월 운행이 중단됐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외국인 방문을 제한하기 전까지 북한 방문 외국

인 중 중국인이 가장 많았으나 코로나19 이후 북한은 중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앞으로 복중 관계가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작년 9월 베이징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6년여만에 만나 복중관계 복원을 알렸다.

/연합뉴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